

이열치열 맨발걷기 땀 빼고 시원한 도서관 찾아 알뜰피서

광주 시민들의 슬기로운 '더위내기'

도심 물놀이장 수천여명씩 몰려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도 성황

도서관들 다양한 '복강스' 행사

광주에 16일 넘게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각각 색 피서법으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는 '알뜰형', 시원한 도서관에서 '복강스'를 즐기는 '웰빙형' 피서법을 택하거나 실내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맨발걷기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 운영 '도심 물놀이장' 인기 폭발=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심 물놀이장'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여름동안 벌써 수천명의 방문객이 물놀이장을 찾았다.

광주시가 지난달부터 무료 개장한 광주천과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민의 숲에는 물 폭포와 워터슬라이드 등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7000여명의 방문객을 맞았으며, 광주천 또한 2950여명의 광주시민이 몰려들어 폭염을 씻어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개장한 물놀이장도 인기가 높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마련된 산동고 천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지난달 24일 개장 후 10여일만에 9386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동강대 운동장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방문객 9779명을 기록해 1만여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광산구 송산동 송산근린공원(3300명),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1300명), 쌍춘동 쌍학어린이공원(1000명) 등 물놀이장에도 더위를 식히러 몰려든 방문객들이 가득했다.

광주시 동구도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내남동 도시농업복합단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이곳 물놀이장은 첫 선을 보였던 지난해에도 이틀간 300여명이 방문할만큼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올해는 동구가 심어 둔 상추 등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시원하게 운동하니 땀도 안 나=맨발 산책이나 실내 스케이트 등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하며 '시원

하게 땀 흘리는' 시민들도 있다.

6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유안근린공원 맨발로 산책길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 십수명이 맨발걷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환한 표정으로 맨발로 걷고 있었다. 맨발 산책로에 깔린 황토 흙이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걸을수록 온 몸이 시원해진다는 것이다. 한 달째 매일같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다는 최남심(76)씨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에 있으면 무릎이 시리다"며 "오히려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맞으며 고슬고슬한 땀을 뺀으니 더위가 싹 가신다"고 웃었다.

한여름에도 마치 겨울같은 냉기를 품고 있는 실내빙상장도 '더위 대피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광주실내빙상장에는 한여름의 얼음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염주체육관 운영주체인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여름철인 지난 6월부터 8월 5일까지 이곳에는 1만 4768명의 시민들이 찾아왔다. 특히 8월 들어서는 닷새만에 1846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등 성황이라는 것이다.

◇에어컨 바람 맞으며 독서 삼매경=도서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책강스'를 즐기는 이들도 다수다.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구립 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은 더위도 잊고 책에 열중하는 시민들로 빈 자리 없이 빼곡했다. 도서관 곳곳에 둘러앉아 책 속 세계에 빠져있는 이들은 더위뿐 아니라 시간까지 잊은 듯했다.

대학생인 이아름(여·24)씨는 "집에 있던 답답하지만 카페는 마음 편히 오래 있기 힘들어 도서관에 자주 온다"며 "최근엔 다들 더워서 도서관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져 자리잡기 힘들 정도"고 말했다.

초등학교생 자녀 전혜연(여·8)양과 함께 도서관을 찾은 조은혜(여·48)씨는 "아이가 학원에 가기 전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서관에 매일 온다"며 "도서관은 시원하기도 하고 아이가 책에 전신해줄 기회이기도 해 좋은 피서지"고 말했다.

각 도서관도 이에 발맞춰 공연·독서교실·체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썸머복강스'를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전시와 강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 농성동의 상록도서관도 오는 10일 독서 게임, 그림책 톨렛 등 독서레크리에이션 행사가 포함된 '상록 별밤 복강스'를 진행한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폭염이 계속된 6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혀줄 얼음조끼를 입고 있다. 얼음조끼는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 당시 의료진들이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해 지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선거 압승·정권 재창출 기틀 다지겠다”

양부남 신임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당원 중심 의사결정구조 마련

혁신·통합의 시당으로 바꿀 것



신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사진) 국회의원은 6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압승과 정권 재창출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당의 역량 강화와 수평적 리더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시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권 재창출에 일익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당의 리더십부터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 주권’의 광주시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광주와 당원의 의사를 중앙당에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해 당원이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각 동네를 한꺼번에 정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지역위원회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 당원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광주 8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당의 운영도 지역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분담하는 집단 운영 체계를 통해 혁신과 통합의 광주시당으로 변모시키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주 정치 학교’와 정책 연구원 등을 만들어 지역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경제·행정 분야 등에서 전문적 능력을 강화할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가칭 ‘광주 정치 지도자 학교’와 같은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배출하겠다”며 “지역 기반 ‘정책 연구원’을 통해 경제·행정·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당 위원장 인준은 7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양 위원장은 강성 천명(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와 의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양 위원장과 강 상임대표

간 폭로·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경선 과정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라며 “강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이후에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동지이기도 하다.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광주시당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원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혁신과 통합의 자세로 광주시민, 민주당원과 함께 정권 교체에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뒤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 양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은 공천 시스템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무엇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당원과 광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민주당 압승을 위한 가장 큰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역위원회의 현역 의원이나 광주시당 중심 공천이 아닌 당원이 선택하고 광주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민생 특사'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

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